

## 출애굽기 3:14의 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 - ‘에호예(יהוה)’를 중심으로 -

권성달\*

#### 1. 서론

출애굽기 3:14에는 ‘에호예(יהוה)’란 단어가 세 차례 출현한다.<sup>1)</sup> 특히 그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호예(יהוה)’로 구성된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יהוה אשר יהוה)”라는 표현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구절이므로 그에 대한 번역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아주 난해하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할 뿐 아니라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으로 살펴 볼 때도 특이한 구문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표현 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번역 역시 용이하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본 구절을 취급하는 많은 이들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철학이나 신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다룬다.<sup>2)</sup> 그러나 충분한 언어학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철학이나 신학적 논의들은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본 고찰에서는 여러 논의들의 기반을 확고히 해주는 언어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고찰에서는 고대 번역서와 현대 한글 번역 및 영어 번역과 여러 주석서에서 출애굽기 3:14의 ‘에호예(יהוה)’를<sup>3)</sup> 어떻게 번역하고 다루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이 구절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했다.

출애굽기 3:14의 ‘에호예’와 다음 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인 ‘아도나이(יהוה)’는 언어적, 문맥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도나이’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언어학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주제 역시 ‘에호예’처럼 언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구약학.

1) יהוה יהוה יהוה אלהים אל משה אשר יהוה אשר יהוה אלהים אל משה יהוה אשר יהוה אשר יהוה אלהים אל משה יהוה אשר יהוה אשר יהוה אלהים אל משה Exod. 3:14

2) 장영일, 이태훈뿐 아니라 몇몇 논문들에서 본 구절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나 본고에서와 같이 언어학적인 접근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의 천착이다.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2 [1996], 104-136; 이태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문맥을 통한 주해-”, 『성경과 교회』 5:1 [2007], 7-25).

3) 이하 단순히 ‘에호예’라 칭한다.

어학적인 고찰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아도나이’에 관한 논의를 제외시켰다.

## 2. 선행 번역 및 분석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와 후반절의 ‘에호예’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는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의미론적인 측면이다. 형태-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출애굽기 3:14에 등장하는 세 개의 ‘에호예’를 어떤 품사로 보았는지, 동사의 형태(접미동사/접두동사 등)는 어떻게 취급하였는지와 시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세 번 등장하는 ‘에호예’의 의미를 어떻게 번역했는지 고대와 현대의 번역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2.1. 고대 번역 성경

#### 2.1.1. 칠십인역

καὶ εἶπεν ὁ θεὸς πρὸς Μωϋσῆν **ἐγὼ εἰμι ὁ ὢν** καὶ εἶπεν οὕτως  
ἑρεῖς τοῖς υἱοῖς Ἰσραηλ **ὁ ὢν** ἀπέσταλκέν με πρὸς ὑμᾶς

##### 2.1.1.1. 형태-통사론적 분석

성서 히브리어에서 ‘에호예(אֶהְיֶה)’와 같은 형태는 출애굽기 3:14의 3회를 포함하여 모두 55회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14의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출 3:14의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

히브리어	히브리어 형태	칠십인역	칠십인역 형태
첫 번째 ‘에호예’	동사 1인칭 단수 접두동사 칼	ἐγώ εἶμι ὁ ὦν	인칭대명사(1인칭 단수)+동사 1인칭 단수, 현재형
두 번째 ‘에호예’	기본형 ‘היה’		정관사+현재분사
세 번째 ‘에호예’		ὁ ὦν	정관사+현재분사

위의 표에서 첫 번째 ‘에호예’와 두 번째 ‘에호예’를 칠십인역이 각각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히브리어의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הַיְהוָה הַזֶּה הַיְהוָה)”를 칠십인역에서는 “에고 에이미 호 온(ἐγώ εἶμι ὁ ὦν)”으로 번역하였다. 임마누엘 토브와 폴락이 공동으로 제작한 CATSS 개정판에 따르면 첫 번째 ‘에호예’를 ‘에고 에이미(ἐγώ εἶμι)’와 대응시켜 놓았으며 가운데 관계대명사 ‘아쉐르(הַזֶּה)’를 정관사 ‘호(ὁ)’로, 두 번째 ‘에호예’를 ‘온(ὦν)’로 대응시켜 놓았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sup>4)</sup>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에호예’를 칠십인역은 ‘호 온(ὁ ὦν)’으로 번역하였다. 히브리어 구문상 세 번째 ‘에호예’는 첫 번째 ‘에호예’와 대응된다. 칠십인역이 세 번째 ‘에호예’를 ‘호 온(ὁ ὦν)’으로 번역한 것은 칠십인역이 첫 번째 ‘에호예’를 ‘호 온(ὁ ὦν)’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만일 칠십인역이 첫 번째 ‘에호예’를 ‘에고 에이미(ἐγώ εἶμι)’로 보았다면 세 번째 ‘에호예’도 ‘에고 에이미(ἐγώ εἶμι)’로 번역했을 것이다. 히브리어 ‘에호예’를 ‘호 온(ὁ ὦν)’과 같이 정관사+분사로 번역을 한 곳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출애굽기 3:14의 두 번이 전부이다. 정관사 없이 분사로만 번역한 곳도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은 히브리어 ‘에호예’를 칠십인역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 <표2> 히브리어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

칠십인역의 번역	그리스어 형태	동사 기본형	빈도수
ἔσομαι	future 1인칭 단수	εἶμι	36
ἦμην	imperfect 1인칭 단수	εἶμι	6
εἶμι	present 1인칭 단수	εἶμι	3
ὁ ὦν	def. article + participle	εἶμι	2
ἐγενόμην	aorist 1인칭 단수	γίνομαι	3

4) E. Tov & F. Polak, *The Revised CATSS Hebrew/Greek Parallel Text* (Atlanta: Scholars Press, 2005). (CATSS = Computer-Assisted Tools for Septuagint Studies Project). 베버스(Wevers) 역시 칠십인역이 두 번째 에호예를 분사로 번역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J.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Exodus*, Atlanta: Scholars Press, 1990, 33).

칠십인역의 번역	그리스어 형태	동사 기본형	빈도수
γίνωμαι	sub. aor. 1인칭 단수	γίνομαι	1
ἀπέβην	aorist 1인칭 단수	ἀποβαίνω	1
κατόπισθέν	adverb		1
번역 안함			2
합계			55

위의 표를 보면 칠십인역 번역자가 출애굽기 3:14의 ‘에호예’에 대한 번역 중 첫 번째 ‘에호예’와 세 번째 ‘에호예’에 대한 번역에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위의 표에서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에호예’를 전혀 번역하지 않은 경우가 두 번 출현하고 가정법이나 부사로 번역한 경우가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에페벤(ἀπέβην)’과 같이 다른 단어로 번역한 경우가 한 번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경우는 모두 문맥상 매끄럽게 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 온(ὁ ὦν)’과 같이 정관사+분사로 번역한 것은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번역으로 보기 힘들뿐 아니라 직역으로 보기도 힘들다. 칠십인역에는 칠십인역이 번역되던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리스어의 관점에서 볼 때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색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sup>5)</sup> 그 경우 상당수가 직역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칠십인역에는 수많은 기계적인 번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볼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 가운데 미래가 아닌 현재나 미완료과거나 부정과거로 번역한 경우가 총 13회인데 그 중 8회는 히브리어 ‘바브 연속법의 접두동사’ 형태로 ‘접미동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래로 번역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나머지 5회는 모두 문맥에 따른 번역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3:14에서 ‘분사’로 번역한 것은 어떤 시제도 본 구절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칠십인역의 견해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칠십인역이 출애굽기 3:14에 나타난 세 개의 ‘에호예’를 각각 어떤 품사로 보았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칠십인역이 ‘에호예’를 번역할 때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고유명사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설득력이 없다. 칠십인역이 고유명사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히브리어 고유명사인 ‘아도나이(יהוה)’에 대한 번역은 ‘퀴리오스(κύριος)’로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구성된 보통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호예’를 ‘정관사+분사’로 번역한 것을 보면 칠십인역이 그것을 동사로 보지 않았던

5) 스웨테(Swete)는 “칠십인역의 방법은 그리스어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했다(H. B. Swete,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Mass.: Hendrickson, 1989], 299). Jobes (K. H. Jobes and M.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105-118을 보라.

것 같으며 전후 문맥상 고유명사로 보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고유명사 표기를 대문자로 하지 않은 것은 ‘퀴리오스(κύριος)’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기이므로 직접적인 표기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에흐예’는 동사로 본 것 같으며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하다고 보아 “I am the being”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칠십인역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흐예’를 명사로, 두 번째 ‘에흐예’는 동사로 보았고 관계대명사 ‘아쉐르(אשר)’와 두 번째 ‘에흐예’는 첫 번째 ‘에흐예’와 연결된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았으며 첫 번째 ‘에흐예’는 주격 보어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 2.1.1.2 의미론적 분석

먼저 ‘에흐예’의 의미론적 분석에서의 한계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에흐예’의 기본형인 히브리어 ‘하야(היה)’는 매우 다양한 의미 영역을 포함한다. 영어 번역인 NRS는 히브리어 ‘하야(היה)’를 약 80가지 동사로 번역한다. ‘하야’ 외에 어떤 단어도 이런 방대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히브리어 ‘하야’의 영어 번역에서 사용된 다양한 동사들은 대부분 직역이 아닌 ‘의역’에서 사용된 단어들이며 ‘하야’와 대응되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to be’이다. 히브리어의 ‘하야’나 영어의 ‘to be’에 해당되는 전 세계 언어들에 고찰해 보면 각 언어들 통사 구조에 따라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 영역이 세분화되어 나타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그 단어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의미론적 범주를 포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sup>6)</sup> 즉 수메르어나 알타이어와 같이 전치사가 발달하지 못하고 후치사나 접미사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어휘적 구분이 뚜렷하고 셈어나 인도-유럽어와 같이 전치사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어휘적 구분이 뚜렷하지 못하고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범주를 포함한다는 것이다.<sup>7)</sup> 우리말에 속해 있는 알타이어족의 언어에서는 히브리어 ‘하야’에 대응하는 단어가 ‘이다’, ‘있다’, ‘되다’의 세 범주로 그 의미 영역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어 ‘하야’는 다른 셈어, 인도-유럽어 등과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우리말에 속한 알타이어족의 언어들과는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 ‘하야’를 그리스어나 아랍어 타르굼, 시리아의 페쉬타 등과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히브리어 ‘하야’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두 단어가 ‘에이미(εἰμι)’와 ‘기노마이(γίνομαι)’이다.

6) 보다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본인의 글(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을 보라.

7) Ibid., 87.

<표3> 히브리어 ‘하야’에 대응하는 칠십인역의 동사

	είμι	γίνομαι	기타	계
빈도수	1528	897	229	2654
백분율	57.6%	33.8%	8.6%	100%

<표3>과 <표2>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히브리어 ‘하야’ 전체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은 그리스어의 ‘에이미’와 ‘기노마이’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히브리어 ‘하야’ 중 ‘접두동사 1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은 ‘에이미’가 전체의 85.4%로 ‘기노마이’(7.3%)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히브리어 ‘하야’의 우리말 대응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의미적 범주인 ‘이다’, ‘있다’, ‘되다’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았다.

<표4> 히브리어 ‘하야’에 대응하는 칠십인역 동사와 의미론적 범주

	이다	있다	되다	계
είμι	450	633	445	1527
γίνομαι	189	470	238	897
합계	639	1103	683	2425

칠십인역이 하야를 번역할 때 주로 사용한 두 동사를 의미론적 범주와 비교해 본 결과 그 두 동사와 의미론적 범주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으나 번역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이다’와 ‘되다’의 범주에서는 ‘기노마이’보다는 ‘에이미’ 동사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다’의 범주에서는 ‘에이미’보다 ‘기노마이’를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동사의 차이는 의미론적 범주보다는 시제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5> 히브리어 ‘하야’에 대응하는 칠십인역 동사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계
είμι	529	44	1123	1696
γίνομαι	1049	29	121	1199
합계	1578	73	1244	2895

<표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히브리어 ‘하야’에 대응하는 칠십인역의 두 동사는 시제에 따라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두 동사 모두 현재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나 ‘에이미’는 미래가 과거보다 비율이 더 높으며 ‘기노마이’ 동사는 미래보다는 과거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히브리어 ‘하야’에 대한 칠십인역에서 사용한 동사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책들의 차이와도 관계가 있다. 창세기에서는 ‘기노마이(150회)’가 ‘에이미(142회)’보다 약간 더 사용되었지만 모세오경의 나머지 네 권에서는 ‘에이미(478회)’가 ‘기노마이(155회)’보다 약 3배가량 더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에호예’에 대한 칠십인역에서 ‘에이미’ 동사가 ‘기노마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론적 원인이 아닌 시제적인 원인과 책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אֲשֶׁר אֶהְיֶה אֲשֶׁר אֶהְיֶה)”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도 매우 어색한 표현이지만 그에 대한 칠십인역의 번역인 “에고 에이미 호 온(ἐγώ εἰμι ὁ ὢν)” 역시 그리스어에서도 어색한 표현이다. 그리스어에서 “에고 에이미(ἐγώ εἰμι...)”라는 표현은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명사 문장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אֲנִי יְהוָה (출 8:18) // ἐγώ εἰμι κύριος

그러므로 칠십인역은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중 뒷부분인 “아쉐르 에호예”를 첫 번째 ‘에호예’를 설명해주는 ‘나는 ... 이다’ 즉 히브리어의 ‘아니(... אֲנִי)’로 이해하였으며 첫 번째 ‘에호예’를 ‘호 온(ὁ ὢν)’으로 번역하였다. 칠십인역에서 ‘호 온(ὁ ὢν)’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칠십인역에서 ‘에이미(εἰμι)’의 분사형인 ‘온(ὢν)’으로 번역된 곳이 총 348회 등장하는데 그 중 ‘호 온(ὁ ὢν)’과 같이 앞에 정관사와 함께 출현하는 곳은 출애굽기 3:14 외에 열왕기상 16:22에서만 단 한 차례 등장하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6:22의 경우 칠십인역 ‘호 온(ὁ ὢν)’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관계대명사 ‘아쉐르(אֲשֶׁר)’ 단어뿐이며 그 뒤에 전치사가 함께 출현하는 구조로서 출애굽기 3:14와는 통사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הָעָם אֲשֶׁר אֶהְיֶה עִמָּו (왕상 16:22) // ὁ λαὸς ὁ ὢν ὀπίσω Αμβρι

즉, 출애굽기 3:14에서 첫 번째 ‘에호예’의 칠십인역의 번역인 ‘호 온(ὁ ὢν)’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 ‘에호예’는 관계대명사를 통한 관형절이 아닌 ‘명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호 온(ὁ ὢν)’을 “the one who is”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sup>8)</sup> 칠십인역의 ‘호 온(ὁ ὢν)’에 대한 번역은 영어의 “the being”보다 우리말의 “존재하는 자”가 더 적절

8) J.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Exodus* (Atlanta: Scholars Press, 1990), 34.

한 표현이라 본다. 그리스어의 ‘에이미(εἰμι)’나 영어의 ‘be’에는 여러 가지 의미론적 범주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애굽기 3:14의 첫 번째 ‘에호예’는 고유명사이므로 칠십인역이 그 단어를 ‘에이미(εἰμι)’의 분사형으로 번역한 것은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2.1.2. 기타 고대 역본들

고대 역본 중 타르굼 웅켈로스, 수도-요나탄, 네오피티, 그리고 시리아 페쉬타역에서 출애굽기 3:14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타르굼 웅켈로스』

ואמר יי למשה אֱהִיָּה אֲשֶׁר אֲהִיָּה ואמר כדנן תימר לבני ישראל אֱהִיָּה שלחני  
לוותכון

『타르굼 수도-요나탄』

ואמר ייי למשה דין דאמר והיה כולא ואמר כדנא תימר לבני ישראל אנא הוא  
דהוינא ועתיד למיכוי

『타르굼 네오피티』

ואמר ייי למשה ואמר כדדין תאמר לבני ישראל מן דאמר והיה עלמא מן שרוי  
ועתיד למימר ליה הווי ויהווי הוא שלח יתי לוותכון

『페쉬타』

אֱהִיָּה אֲשֶׁר אֲהִיָּה למשה ואמר כדנן תימר לבני ישראל אֱהִיָּה  
אֱהִיָּה אֲשֶׁר אֲהִיָּה

타르굼 웅켈로스와 시리아 페쉬타는 히브리어 본문과 동일한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아람어와 시리아어에는 ‘아쉐르(אֲשֶׁר)’와 ‘에호예(אֱהִיָּה)’와 같은 형태가 없다. 타르굼 웅켈로스와 시리아 페쉬타가 본 구절의 표현이 난해하다고 느껴서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부분을 고유명사로 이해하여 번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타르굼 웅켈로스와 페쉬타는 본 구절에서의 고유명사를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אֱהִיָּה אֲשֶׁר אֱהִיָּה)” 전체로 보았으며 세 번째 ‘에호예’는 전체 이름에 대한 축약된 형태로 이해했을 것이다.

타르굼 수도-요나탄과 타르굼 네오피티는 본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타르굼 웅켈로스나 페쉬타처럼 고유명사로 처리하지 않고 번역을 했다. 그 두 타르굼의 번역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천지창조와 연결시켜 “the one who said and the world came into existence”



등으로 번역한다. 특히 타르굼 네오피티는 세 번째 ‘에호예’를 “יְהוָה יְהוָה”로 번역하는데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번역하였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으로 이해한 것 같다.

## 2.2. 한글 번역 성경

### 2.2.1. 번역

『개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개역개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표준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공동번역』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 라고 하시는 그분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현대인의성경』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어라.

『현대어성경』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늘 있는 나’라고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여라’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히브리어직역 구약성경』<sup>9)</sup>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그리고 그가 말

9) 『히브리어직역 구약성경』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Rothberg International School 유대문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히브리대학교에서 특별학생으로 6년간 수학한 허성갑의 개인 사역이고, 『새증본성경』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의 첫 졸업생인 최의원 박사가 은퇴 후 10여년에 걸쳐 작업한 개인 사역이며, 『쉬운성경』은 어린 자녀들을 위한 성경으로 유재원 외 9명의 번역진과 국어학자 및 교열, 교정 위원들이 8년 동안 작업한 번역 성경이다.

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에호예**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셨다.”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새즈른성경』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에호예**다 하셨다. 그가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곧 **에호예**가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대답하라 하셨다.

## 2.2.2. 분석

### 2.2.2.1. 형태-통사론적 분석

대부분의 한글 번역은 두 번째 ‘에호예’를 ‘나는’으로 번역하고 ‘아쉐르 에호예’를 ‘나는 …이다’로 번역하는데 형태-통사론적인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번역은 칠십인역과 비슷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형태-통사론적으로 가장 독특한 번역은 『히브리어직역구약성경』과 『새즈른성경』인데 『히브리어직역구약성경』은 타르굼 웅켈로스나 페쉬타와 같이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았으며 『새즈른성경』은 첫 번째 ‘에호예’만 고유명사로 보았다. 본 구절에 대한 히브리어의 기록에서 첫 번째 ‘에호예’와 두 번째 ‘에호예’와의 관계가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었음에도 『새즈른성경』은 동격 관계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에호예**”로 번역한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다.

시제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은 두 번째 ‘에호예’를 ‘있는’, ‘존재하는’ 등과 같이 ‘현재’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 역시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로 번역하였으나 첫 번째 ‘에호예’에 대한 인칭 표시가 1인칭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이 두 번역밖에 없는데 이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I AM WHO I AM”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2.2.2.2. 의미론적 분석

대부분의 한글 번역이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 ‘있는’으로 번역하였다. 『현대인의성경』과 『새즈른성경』이 ‘있다’라는 동사보다는 ‘존재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존재’를 더욱 더 부각시킨 것을 본다. 『히브리어직역구약성경』은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았으므로 그 고유명사를 의미론적으로 어

떻게 보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한글 번역이 ‘존재’와 관련을 지은 것과는 다르게 『공동번역』만이 “나는 곧 나다”로 번역하여 ‘있다’의 범주가 아닌 ‘이다’의 범주로 다루었음을 본다.

한글 번역에서 특이한 점은 『히브리어직역구약성경』과 『공동번역』을 제외한 모든 한글 번역이 ‘스스로’라는 부사를 추가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어 번역은 물론 고대의 어떤 번역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데, 히브리어 ‘에흐에’에 포함되어 있는 1인칭의 의미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있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 2.3. 영어 번역 성경

### 2.3.1. 번역

#### KJV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 NKJ

And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you shall say 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 NIV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NRS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He said further, “Thus you shall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NAS

And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Thus you shall say to the sons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 JPS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 TNK

And God said to Moses, “**Ehyeh-Asher-Ehyeh.**” He continued, “Thus shall you say to the Israelites, ‘**Ehyeh** sent me to you.’”

### 2.3.2. 분석

### 2.3.2.1. 형태-통사론적 분석

영어 번역 중 가장 특이한 번역은 TNK로<sup>10)</sup>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았고 세 번째 ‘에흐예’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에 대한 축약된 형태로 보았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하였는데 우선 대문자로 기록하여 다른 일반적인 표현과는 구별된 것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영어에서 고유명사의 표기법인 첫 문자만을 대문자로 표기하는 일반적인 표기법을 무시하고 문자 전체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이러한 표현은 매우 어색한 표현임이 틀림없다. 또한 영어 번역에서 히브리어의 ‘에흐예’를 고유명사나 보통명사로 보았는지의 여부와 고유명사로 보았다면 몇 번째 ‘에흐예’를 고유명사로 보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영어 번역이 ‘에흐예’를 고유명사로 보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그 단어를 ‘번역’했다는 것은 고유명사로서의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TNK를 제외한 모든 영어 번역이 ‘에흐예’의 시제를 ‘현재’로 번역했으며 관계대명사 ‘아쉐르’를 ‘who’나 ‘that’로 번역하였다. “I am who I am”이란 표현은 영어의 통사론에서도 어색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한 것은 의아한 일이다. 영어 번역이 전체 표현을 대문자로 처리한 것은 아마도 그러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직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접두동사’ 형태를 영어에서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과연 직역인가 하는 것은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 장에서 시제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 2.3.2.2. 의미론적 분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 am who I am”이란 표현은 영어에서도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영어 번역에서의 의미론적 분석은 TNK를 제외한 모든 영어 번역에서 사용한 동사인 ‘be’에 대한 분석으로 집약된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הָיָה)’의 가장 일반적인 영어 대응어가 ‘be’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be’가 본 구절에서 가장 적절한 단어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말에서는 ‘이다’, ‘있다’, ‘되다’와 같이 그 의미론적 범주가 뚜렷이 구별되나 히브리어 ‘하야(הָיָה)’와 영어의 ‘be’는 여러 의미론적 범주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어의 “I am who I am”이란 표현에서 첫 번째 ‘am’은 우리말에서 ‘이다’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I am who I am”은 ‘나는 …이다’의 범주에서 번역이 가능하다. 문제는 두 번째 ‘am’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 ‘am’도 ‘이다’의 범주에 넣는다면 『공동』과 같이 “나는 곧 나

10) JPS (Jewish Publication Society) Tanakh(1985).

다’와 같은 번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am’을 ‘있다’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면 번역은 어려워진다. 가장 큰 이유는 1인칭 대명사인 ‘I’ 때문이다. ‘I am (the one) who is’와 같이 관계절에 3인칭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 “있는 자”로 번역한 것이 3인칭으로 번역한 예이다. 영어 번역의 또 하나의 문제는 세 번째 ‘에흐예’에 대한 번역인 “I AM”에 있다. 세 번째 ‘에흐예’는 고유명사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번역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I am”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것에 있다. 세 번째 “I am”은 통사구조상 “I am who I am” 중 첫 번째 “I am”으로 보아야 하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첫 번째 “I am”은 ‘이다’의 범주에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세 번째 “I am”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므로 영어 번역의 “I am who I am”과 세 번째의 “I am”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번역이라 볼 수 있다.

#### 2.4. 각종 주석에 나타난 번역

유대인 주석이나 영어 주석, 한글 주석, 영어 주석에 대한 한글 역서 등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에서 크게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주석서 중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과는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I AM; that is who I am<sup>11)</sup>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여 첫 번째 “I am”과 두 번째 “I am”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반면 클레멘츠(Clements)의 주석은 첫 번째 “I am”만이 명사이며 두 번째 “I am”은 첫 번째 “I am”에 대한 설명임을 보여준다.

##### (2) I will be who I will be

이 구절을 미래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현재로 번역을 소개하면서 미래로의 번역도 가능성을 제안하는 이도 있으며<sup>12)</sup> 현재보다는 미래 번역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이들도 있다.<sup>13)</sup> 큐리(Culi)는 이

11) R. E. Clements, *Exod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72), 23.

12) R. A. Cole,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장도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97.

13) C. Houtman,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ume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31-32; T.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63; W. H. Propp, *Exodus 1-18. The Anchor Bible,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9), 181.

구절을 미래로 해석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에흐예와 두 번째 에흐예를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즉 첫 번째 에흐예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이며 두 번째 에흐예는 미래의 출애굽에 대해 나타낼 것을 의미한다고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에흐예에 대해서만 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4)</sup>

(3) I [am the one who] will always be

랍비이자 중세 유대인 주석가 람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에흐예’로 보며 그 뜻은 ‘영원히 존재할 자’로 보았다. 그러나 ‘에흐예’란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보여주는 암호 문자와 같은 차원의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5)</sup>

(4)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유대인 주석 중 ‘하함’(Chacham)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만한 적절한 이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전체 이름을 다 말하지 말고 한 구성원인 ‘에흐예’로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본다.<sup>16)</sup>

### 3. 출애굽기 3:14의 ‘에흐예’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 3.1. 형태-통사론적 고찰

언급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 3:14에 나오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הְיֶה אֲשֶׁר אֶהְיֶה)”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라는 언어적 측면에서 매우 난해한 표현이다. ‘아쉐르(אֲשֶׁר)’라는 관계대명사를 가운데 두고 바로 전후에 동일한 어원과 형태의 동사를 갖는 구조는 구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sup>17)</sup> 출애굽기 3:14에 세 번 출현하

14) Y. Culi, *The Torah Anthology*, A. Kaplan, trans. (New York; Jerusalem: Mazaim Publishing Corporation, 1978), 91-92.

15) M. I. Lockshin, *Rashbam's Commentary On Exodu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36-37.

16) A. Chacham, *The Book of Exodu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ossad Harav Kook, 1991), 50.

17) 창세기 33:9에 “에히 레하 아쉐르 라흐(אֶהְיֶה לְרַחֵם אֶתְּךָ)”라는 표현이 이와 비슷한 표현이기는

는 ‘에흐예(אֲהַיֶּה)’의 품사는 각각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에흐예(אֲהַיֶּה)’는 형태적으로 ‘헤이(ה), 요드(י), 요드(י)’를 어원으로 하는 동사(칼 유형, yiqtol -접두 동사 - 형태, 1인칭 단수)와 정확하게 동일하지만 그 품사는 동사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에흐예’는 명사이다.

출애굽기 3:13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אֲהַיֶּה אֲשֶׁר אֲהַיֶּה)”이며 그 대답 중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에흐예’이다. 첫 번째 ‘에흐예’ 이 후에 나오는 ‘아쉐르 에흐예’는 첫 번째 ‘에흐예’를 수식하는 종속절이므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는 한 구성원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나의 이름은’이라는 주어를 심층적으로 포함하는 문장이다. 즉, ‘(나의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이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에흐예’는 명사여야 한다.

(2) 구조적으로 첫 번째 ‘에흐예’는 명사이다.

구약 전체에서 ‘아쉐르(אֲשֶׁר)’ 뒤에 동사를 가지며 ‘아쉐르(אֲשֶׁר)’ 앞에 동일한 어근을 갖는 구조가 총 117회 등장하는데 ‘아쉐르(אֲשֶׁר)’ 앞에 오는 구성 성분은 항상 명사이다. 따라서 출애굽기 3:14의 전후 문맥을 살펴지지 않고 그 구절의 구조만 보더라도 ‘아쉐르(אֲשֶׁר)’ 앞에 있는 단어는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들을 보라.

창 36:31

וְאֵלֶּה הַמְּלָכִים אֲשֶׁר מָלְכוּ בְּאֶרֶץ אֲדָוִם לִפְנֵי מֶלֶךְ־מִלְכָּה לְבְנֵי יִשְׂרָאֵ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이다.

삼상 3:17

מָה תִּדְבַּר אֲשֶׁר תִּדְבַּר אֵלַי

그가 네게 말한 말이 무엇이냐?

(3) 통사론적으로 첫 번째 ‘에흐예(אֲהַיֶּה)’는 동사일 수 없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동사+아쉐르+동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동사는 항상 아쉐르가 이끄는 절을 목적절로 가진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동사가 타동사

---

하나 이 구절에서는 “에히”가 본 동사이므로 그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사무엘상 23:13에 “바이트할후 바아쉐르 이트할라후(וַיִּתְהַלְכוּ בְּאֲשֶׁר יִתְהַלְכוּ)” ‘그들이 이동하는 곳까지 이동했다’라는 구절 또한 비슷한 구절이라 할 수 있으나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동일한 구조는 아니다.

일 경우에만 그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첫 번째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 그러한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18)</sup> 다음의 예를 보라.

예) 출 6:1

תְּרֵאָה אֲשֶׁר אֶעֱשֶׂה לְפָנֶיךָ

내가 바로에게 행할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אֶהְיֶה אֲשֶׁר אֶהְיֶה)”에서 첫 번째 ‘에호예’는 형태적으로 보면 동사로 보이므로 ‘동사+아쉐르+동사’의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에호예’를 동사로 보더라도 그 동사는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이므로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에호예’는 동사일 수 없다.

두 번째 ‘에호예(אֶהְיֶה)’는 동사인가 명사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אֶהְיֶה אֲשֶׁר אֶהְיֶה)” 전체인가 아니면 첫 번째 ‘에호예’만 인가라는 질문과 상통한다. 만일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אֶהְיֶה אֲשֶׁר אֶהְיֶה)”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두 번째 ‘에호예’ 역시 고유명사의 일부분이다. 첫 번째 ‘에호예’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두 번째 ‘에호예’는 관계대명사 ‘아쉐르’가 이끄는 절로서 첫 번째 ‘에호예’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므로 두 번째 ‘에호예’는 동사가 된다. 만일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세 번째 ‘에호예’는 축약형이다. 그러나 성서 히브리어 전체에서 동일한 어원을 관계대명사만을 사이에 두고 나열하는 이름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출애굽기 3:14 바로 다음 절인 출애굽기 3:15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에호예’가 아닌 ‘아도나이(אֲדֹנָי)’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영원한 나의 이름”과 연결되는 표현이 ‘아도나이(אֲדֹנָי)’ 외에도 그 뒤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긴 문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아도나이(אֲדֹנָי)’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축약형으로 보는 이는 없다. ‘에호예’가 ‘아도나이(אֲדֹנָי)’와 연결되는 것이 문맥적으로나 어원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14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호예’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시제에 대해 고찰해보자. 앵커바이블(Anchor Bible) 주석은 이 구절을 미래로 해석하면서 하야의 미완료는 항상 미래를 나타낸다고 하며<sup>19)</sup> 여러 주

18) 영어에서도 ‘I am who/that I am’과 같은 표현이 어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비슷한 표현인 ‘I know that I know’는 어색하지 않다.

19) W. H. Propp, *Exodus 1-18. The Anchor Bible,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9), 204.



석서에서도 이 구절을 미래로 해석해야 함을 제안한다. 그러나 ‘접두동사’ 형태가 항상 미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맥폴(McFall)의 통계에 따르면 ‘접두동사’ 형태가 미래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단지 58%에 불과하다.<sup>20)</sup> 하야동사가 일반 동사에 비해 시제에 보다 더 민감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야의 ‘접두동사’가 미래에 해당하는 것은 89.4%이며 나머지는 현재나 과거에 해당한다.<sup>21)</sup> 하야의 ‘접두동사’가 과거 문맥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예를 보라.

출 40:38

עָנַן יְהוָה עַל-הַמִּשְׁכָּן יוֹמָם וְאֵשׁ תִּהְיֶה לְלֵילָה בּוֹ

낮에는 여호와와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곳에 있었다.

‘접두동사’가 반드시 미래로 번역될 수 없음은 시제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고유명사의 용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접두동사’로 구성된 히브리어 이름들을 살펴보면 ‘야곱(יַעֲקֹב)’, ‘이삭(יִצְחָק)’, ‘이스라엘(יִשְׂרָאֵל)’과 같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은 ‘미래’ 문맥에서가 아닌 ‘과거’나 ‘현재’ 문맥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에서는 한 시점을 표시하는 ‘시제’를 중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진행, 반복, 습관, 미완료 등의 상(aspect)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그 동사와 관련된 의미론적 ‘속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동사로 구성된 이름에 대한 성서 히브리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는 대개 동일한 동사의 어근으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킨다. 아래의 예를 보라.

창 32:29

וַחֲזַק לֹא יַעֲקֹב וַיֹּאמֶר עוֹד שָׂמַדְךָ כִּי אִם-יִשְׂרָאֵל כִּי-שְׂרִיטָה עִם-אֱלֹהִים וְעִם-אֲנָשִׁים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겨루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에호예 아쉐르 에호예’에서 첫 번째 ‘에호예’는 이름이

20)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186-188.

21)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논문 Sungdal Kwon,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Syntactic, Pragmatic and Semantic Studies by means of Statistical Analysis” (written in Hebrew), Ph.D.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7), 72-84를 보라.

고 관계대명사 ‘아쉐르’를 포함한 두 번째 에흐예는 첫 번째 에흐예에 대한 설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2. 의미론적 고찰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 히브리어의 ‘하야(הָיָה)’는 매우 방대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으나 크게 세 개의 의미론적 범주로 축소시킬 수 있으며 우리말에서는 ‘이다’, ‘있다’, ‘되다’의 세 단어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의 ‘하야(הָיָה)’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 영역 외에도 분사와 함께 조동사적으로도 사용되며 ‘바예히(בָּיְחִי)’나 ‘베하야(בְּהָיָה)’의 형태로 출현하여 특별한 역할을 하는 ‘특수절’도 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하야(הָיָה)’에는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대동사’로서의 ‘하야’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빈도수가 빈약하다. 다음은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히브리어의 ‘하야(הָיָה)’의 분포이다.<sup>22)</sup>

<표6> 의미론적 범주에 따른 히브리어 ‘하야(הָיָה)’의 분포

범주	“이다”	“있다”	“되다”	조동사	특수절	합계
빈도수	701	1209	736	163	599	3408
백분율	20.6%	35.5%	21.6%	4.8%	17.6%	100%

많은 학자들이 하야의 동사성 혹은 동사적인 힘이나 자체적인 의미에 대해 언급하지만 바르텔무스(Bartelmus)는 그의 논문에서 시종일관 하야의 무의미성을 주장한다.<sup>23)</sup> 또한 하야의 의미를 언급하는 이들 중 하야의 본래적 의미를 ‘to become’에만 축소시키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하야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나 한 의미에만 축소하려는 이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출애굽기 3:14에서 의미론적 고찰과 관련되는 것은 두 번째 ‘에흐예’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흐예’는 고유명사이므로 그 명사가 어떤 뜻을 가졌든지 간에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두 번째 ‘에흐예’를 어

22) Ibid., 87.

23) R. Bartelmus,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isch “Allerweltswortes”* (St. Ottilien) (München: EOS Verlag, 1982). 아마도 바르텔무스(Bartelmus)는 “한 형태 한 의미”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우리는 여기서 “한 형태 한 의미”와 “한 형태 다중 의미” 사이에서 논쟁을 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목적은 성서 히브리어에 하야의 의미 중 어떤 의미가 보다 본래적인 의미이며 어떤 것이 부수적인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서 히브리어에는 하야의 의미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과 논점의 중심에 있는 출애굽기 3:14의 ‘하야’가 어떤 의미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에흐예’는 <표6>의 의미론적 범주 중 ‘있다’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칠십인역과 공동번역이 ‘이다’의 범주에 넣고 번역을 하였으나 관계대명사로 연결된 히브리어 구문에서 ‘하야’가 다른 부수적 술어나 주격 보어 없이 단독적으로 사용되어 ‘이다’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그러한 구조는 통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 3:14의 두 번째 ‘에흐예’가 속한 통사구조이다.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 출 1:5 יוֹסֵף הָיָה בְּמִצְרַיִם יוֹסֵף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다.
- (2) יוֹסֵף בְּמִצְרַיִם יוֹסֵף 요셉은 이집트에 있다.
- (3) 창 50:22 יוֹסֵף בְּמִצְרַיִם יוֹסֵף יוֹשֵׁב 요셉은 이집트에 거주했다.

위의 세 예문에서 ‘베미쯔라임(בְּמִצְרַיִם)’이 문장에서 갖는 위치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 (3)번 문장에서는 ‘바예쉐브(בְּאֵשֶׁבֶת)’가 심층술어이고 ‘베미쯔라임(בְּמִצְרַיִם)’은 심층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에 해당하지만 (1), (2)번 문장에서 의미론적 핵심인 심층술어는 ‘베미쯔라임(בְּמִצְרַיִם)’에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그 심층구조가 동일하다. 소위 ‘명사문장’에 해당하는 (2)번 문장에서 ‘베미쯔라임(בְּמִצְרַיִם)’이 빠진다면 비문이 될 것이다. 성서 히브리어에서 ‘하야’가 ‘있다’의 범주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문장은 위의 (1)번 문장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의미론적 범주는 단지 사람이나 사물의 유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유무의 사실보다는 어떤 장소에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사 문장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핵심 술어가 나타나 있지 않는 문장에서도 전후 문맥상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라.

창15:17

וַיְהִי הַשָּׁמַשׁ בְּאֵהָ וְעַלְטָה הָיָה

해가 질 때 짙은 어두움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이고 장소가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견해는 매우 일리가 있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출애굽기 3:14에서의 두 번째 ‘에흐예’는 ‘존재성’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24) Y. Zidka, “The Verb ‘haya’ in Nominal Sentence”(written in Hebrew), *Hebrew Linguistics* 17 (1981), 21.

‘하야’와도 구별된다. 이곳에서의 ‘하야’는 장소적 처격(locative)도 필요 없으며 ‘있다’, ‘없다’와 같은 단순한 존재의 유무와도 관계가 없는 ‘존재성’ 자체를 나타낸다. 다른 부수적 술어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장소’에 대한 암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14의 두 번째 ‘에호예’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 동사가 ‘1인칭’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에호예 아쉐르 이호예 (אֶהְיֶה אֲשֶׁר אֶהְיֶה)”와 같이 3인칭으로 기록되었다면 첫 번째 에호예를 선행사로, ‘아쉐르’ 다음의 ‘이호예’를 수식절로 하여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나 본 구절과 같이 ‘1인칭’의 경우 어떤 모양이든지 해석에서 ‘1인칭’을 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3:14에서의 두 번째 ‘에호예’의 경우 그 동사가 1인칭임은 분명하지만 첫 번째 ‘에호예’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에호예’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동일한 형태의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태-통사론적으로뿐 아니라 의미론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본 구절은 어떠한 시제와 상으로도 그 해석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1인칭 동사를 1인칭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에서의 1인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일성을 나타내 준다. 존재의 속성을 가지신 존재 자체이시며 본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의 제 1원인임을 보여준다.

#### 4. 결론

이상으로 출애굽기 3:14에 나타난 ‘에호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곳에 세 번 출현하는 ‘에호예’는 히브리어 자체로도 그 해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언어학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심도 있는 언어학적 고찰 없이 본 구절을 이해함으로써 현대 번역과 주석은 물론 고대 번역에서도 그 구절을 놓고 통일된 번역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왜곡된 번역을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 그리고 주석에서 ‘에호예’를 모두 번역하였으며 고대 번역 중에는 칠십인역과 타르굼 수도-요나탄, 타르굼 네오피티가 모든 ‘에호예’를 번역하였다.

고대역본 중 타르굼 웅켈로스와 페쉬타가, 한글 번역에서는 『히브리어직역구약성경』이, 영어 번역에서는 JPS Tanakh가 세 개의 ‘에호예’를 모두 고유명사로 보고 음역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호예’만을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음역한 것은 고대번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어 번역이나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랍비

이자 중세 유대인 주석가였던 랍밤이 그러한 시각을 가졌고 한글 번역 중 『새증본성경』만이 그러한 시각으로 번역하였다.

형태-통사론적으로 출애굽기 3:14의 ‘에흐예’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첫 번째와 세 번째 ‘에흐예’만이 고유명사이며 두 번째 ‘에흐예’는 첫 번째 ‘에흐예’에 대한 설명임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제나 상적인 의미로도 그 해석은 어울리지 않음을 밝혔다. 의미-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두 번째 ‘에흐예’는 광의적으로는 ‘있다’라는 의미론적 범주에 들어가나 ‘하야’가 포함된 다른 문장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며 ‘존재성’을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1인칭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인칭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존재의 제 1원인으로 존재 자체를 가능케 하시며 그 속성 자체가 존재이신 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알게 되었다.

번역이란 여러 개의 가능성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선택하는 작업이므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한글에 능통한 국어학자들과의 협력 작업이 필요하다. 본 고찰에서 구체적인 번역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본 고찰은 출애굽기 3:14에 나타난 ‘에흐예’의 번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언어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 <주요어>(Keywords)

에흐예, 출애굽기 3:14, 스스로 있는 자, 하야, 하나님의 이름  
Ehyeh, Exodus 3:14, I am who I am, Haya, the name of God

(투고 일자: 2009. 8. 31, 심사 일자: 2010년 3월 3일, 게재 확정 일자: 2010년 4월 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성달, “‘to be’에 상응하는 우리말과 여러 언어에서의 비교연구”, 『언어학』 16:2 (2008), 69-91.
- 유재원 외, 『쉬운성경』, 서울: 아가페, 2001.
- 이태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문맥을 통한 주해-”, 『성경과 교회』 5:1 (2007), 7-25.
- 장영일, “‘야웨’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2 (1996), 104-136.
- 최의원, 『새즈른 하나님의 말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허성갑, 『히브리어직역 구약성경』, 서울: 말씀의 집, 2006.
- Cole, R. A.,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장도선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Bartelmus, R., *HYH. Bedeutung und Funktion eines hebrisch “Allerwelts-wortes”*, Munchen: EOS Verlag, 1982.
- Chacham, A., *The Book of Exodus* (written in Hebrew), Jerusalem: Mossad Harav Kook, 1991.
- Clements, R. E., *Exodus, The Cambridge Bible Commentary*, Cambridge: The University Press, 1972.
- Culi, Y., *The Torah Anthology*, Kaplan A., trans., New York; Jerusalem: Mazaim Publishing Corporation, 1978.
-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 Houtman, C., *Exodu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ume 1,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Jobes K. H. and Silva M.,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 Lockshin, M. I., *Rashbam's Commentary On Exodus*, Atlanta: Scholars Press, 1997.
- McFall, 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The Almond Press, 1982.
- Propp, W. H., *Exodus 1-18. The Anchor Bible: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ubleday: The Anchor Bible, 1999.
- Kwon, Sungdal, “HYH(=‘to be’) Sentences in Biblical Hebrew: Syntactic, Pragmatic and Semantic Studies by means of Statistical Analysis” (written in Hebrew), Ph.D. Dissertation,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07.

Swete, H. B.,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in Greek*, Mass.: Hendrickson, 1989.

Tov, E & Polak, F., *The Revised CATSS Hebrew/Greek Parallel Text*, Atlanta: Scholars Press, 2005.

Wevers, J. W., *Notes on the Greek Text of Exodus*, Atlanta: Scholars Press, 1990.

Zidka, Y., “The Verb ‘haya’ in Nominal Sentence”(written in Hebrew), *Hebrew Linguistics* 17 (1981), 5-32.

<Abstract>

**A Linguistic Study on the Translation of ‘Ehyeh’ in Exodus 3:14**

Prof. Sung-Dal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is is a linguistic study on the Biblical Hebrew word ‘Ehyeh’ in Exodus 3:14. The word ‘Ehyeh’ appears three times in Exodus 3:14. In particular, the expression ‘Ehyeh Asher Ehyeh’, which is composed of the first and the second ‘Ehyeh’,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an attribute of God. However, as this is a very obscure phrase even in Hebrew, many translators have struggled with it and have attempted translation in various directions since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his study examines how this phrase was treated in ancient translations, in contemporary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s, as well as in several commentaries, and discusses how the phrase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linguistic aspect.

The methods of translation of the phrase are largely categorized into three group.

(1) All the occurrences of ‘Ehyeh’ in Exodus 3:14 are translated into a common noun rather than into a proper noun.

These occurrences are most common among ancient and contemporary translations. Among ancient translations, Septuagint, Targum Pseudo, Jonathan, and Targum Neofiti fall under this category, and most contemporary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also belong to this category.

(2) All the occurrences of ‘Ehyeh’ in Exodus 3:14 are translated into a proper noun.

Targum Onqelos and Peshitta among ancient translations, ‘A Lateral Translation from Hebrew Bible(MT)’, and JPS Tanakh among Korean and English translations respectively, belong to this category.

(3) Only the first and third occurrences of ‘Ehyeh’ in Exodus 3:14 are translated into a proper noun.

This type of translation is found neither in ancient translations nor in contemporary English translations and commentaries. Only Rambam, a Jewish rabbi and commentator in the Middle Ages, and ‘Saejeumeun Bible’ among



Korean translations, have this view.

When ‘Ehyeh’ in Exodus 3:14 was examined closely from the morphologic, syntactic aspect, we found that only the first and third ‘Ehyeh’ are proper nouns and that the second ‘Ehyeh’ is an explanation for the first ‘Ehyeh’.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latter interpretation is not acceptable in any tense or ph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ation in the semantic, syntactic aspect, the second ‘Ehyeh’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antic category of ‘exist’ in a general sense but distinguished from other sentences which include verb ‘haya’,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an expression indicating ‘existence’. In addition, although the first person is used, it is unnatural to interpret the term as a first-person being, and it is more natural to interpret as the First Cause who enables things to exist and whose attribute itself is existence. The translation closest to the view of this study was the third type of translation; unfortunately, however, the translation did not reflect the contents of linguistic analysis sufficiently.